

이 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

민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내일 본회의 전 의총서 의견 수렴
2차 종합특검법 상정…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이달 내 처리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청와대는 13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논의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리란 예상도 나온다.

이에 이 대통령이 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의견 수렴’을 각각 지시함으로써 견해차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갈등 소지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향후 정부 제출 법안을 심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내 우려를 반영할 여지를 열어둔 것 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법안에 대해 당내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수정안을 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정 간 이견은 없다. 정부에서 법사위원과 행안위원회에게 (법안과 관련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당정 이견설’에 재자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대표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씀했다”며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의총에서 내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원내에서 법사위원 등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덧붙였다.

의총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에서 새로 임명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에 대한 주인도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상정된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하고,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및 법안 처리’ 경로를 밟아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중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법 외곡죄 신설 법안,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1월) 마지막 주에 나흘가량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본회의 의견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민주, 김이수 전 현재소장 대행에 ‘공천 지휘봉’

조선대 이사장… 지방선거 공관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사령탑에 김이수 전 현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임명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장에 김 전 현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임명하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위) 구성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현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으며 현재 조선대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의원을 맡았다.

고장 출신인 김 위원장은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하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쳤다.

현법재판 시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당시

시 유일하게 해산 반대의견을 내는 등 ‘소수 의견’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했다.

2017년에는 현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현재의 안정적 운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구성된 공관위 부위원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아 김 위원장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며, 위원으로는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과 청년 법의 모경종 의원,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합류해 전문성과 신구 조화를 꾀했다.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담당해 위원회 위원장에는 경남 김해을 3선 김정호 의원이 임명됐다. 재심위 부위원장에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과 전남 지역구(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 의원인 권항영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김이수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관위 운영 방침에 대해 “공평과 공정, 그리고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관위 운영 방침에 대해 “공평과 공정, 그리고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얹힐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당헌·당규와 경선 규칙 등 정해진 원칙 속에서 움직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공천 현금’ 논란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엄격’이라는 관점을 강조한 것은 그런(금품 수수 등)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천대엽 대법관, 재판 복귀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혼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

고 뜻붙였다.

박 대법관의 부임일은 오는 16일이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대엽 현처장(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법관은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총괄실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민주 김병기 제명에, 김 “재심 청구”

대한항공·쿠팡 논란 등 사유… 내일 의총서 표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병기 의원을 제명했다.

13일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고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